

##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 1. 전주 동향

##### 음식료

9월 둘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2.0% 상승. 원/달러 환율은 1,116.8원으로 하락. 곡물가는 옥수수(-4.9% WoW), 소맥(-1.3% WoW), 대두(-1.3% WoW), 원당(+1.4% WoW) 기록. 옥수수는 USDA의 기대 이상의 수출 전망이 제시되며 9/13일 가격 4% 하락. 옥수수 생산량 전월 예상치 대비 2억 4,100만 부셀 상향 수정된 점도 가격 하락 지지. 소맥은 러시아 소맥 수출 제한 우려가 사라지며 공급 축소에 대한 부담이 약화됨. 미 농무부의 러시아 소맥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도 가격 하락 요인. 대두는 미국 GTE 비율이 전주 66%보다 2%p 향상된 68%로 집계된 점이 대두 생산량 증대 기대감으로 이어짐. 9/14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어떠한 압박도 받고 있지 않음을 밝히며 미-중간 무역 갈등이 재부각된 점도 가격 하락 압박. 원당은 브라질 18/19시즌 원당 수출 전년 대비 28.6% 감소될 것으로 예측. 낮은 원당 가격으로 제당사들이 사탕수수의 에탄올을 투입 비율을 높이며 원당 공급 축소할 점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중국 라이신 제조업체 점차 생산 재개 및 새로운 캐파 증설 출현. 원재료 공급이 타이트해 라이신 원가 부담으로 작용한 점이 가격 상승 견인. 메타오닌은 전주 대비 4.0% 가격 상승. 9월은 계절적 영향으로 사료 수요가 증가되는 시점. 현재 순수입이 감소중임을 고려하면 단기간 상승 가능. 공급 과잉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쓰레오닌은 중국 제조 업체의 생산량 감소했으나 재고 압력은 여전히 단기간 약세 지속 전망. 중추절과 국경일이 겹쳐져 단기간 재고 압박 가능. Wanli Runda는 9월 생산 재개. 트립토판은 최근 생산 재개로 인한 공급 증가로 전주 대비 4.1% 가격 하락. 환경 보호 규제로 매화 Tongliao 공장, Ningxia Yipin 공장 생산 중단 중. 단기간 가격 조정 가능.

국내 이벤트는 1. 일본 돈육, 일본 돼지 농장에서 26년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2. 롯데지주, Rakhat, Kolson 등 3곳 지분 롯데제과에 현물출자. 롯데제과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157,904원)으로 나는 롯데제과의 신주 2,208천주 발행. 취득 예정 일자 18년 12/20일 예정 3. CJ제일제당, '18년 상반기 냉동밥 400억원 판매해 M/S 37% 기록. 냉동밥 시장 규모 연평균 40%대 성장 흐름 4. 김치,전국 평균 배추 소매가격 포기당 6,917원으로 폭염 전인 7월 대비 2배 이상 가격 급등. CJ제일제당, 대상 포장김치 수요 증가 5. 풀무원푸드머스, 학교 급식 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의 치료비 전액 및 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발표 6. CJ프레시웨이, 현재 베트남에서 15개 점포, 하루 7만식의 단체급식 운영. 호치민 물류센터 본격 운영으로 베트남 사업 확장 전망

#### 2. 급주 전망

##### 음식료: 2Q18 Review 대부분 실적 기대치 하회하며 부진한 실적 기록. 실적호조 대상, 빙그레, 기대치 부합 CJ제일제당, 매일유업

음식료 시장은 전주대비 부진 지속. 특징주 오르는 3분기 및 하반기 실적 우려 부각되며 추가 급락. 최근 콤비 행사와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레포트 영향으로 추가 급락, 과도한 하락이라는 판단. 3분기 매출액 흐름은 예상대로 진행중이며 기존 제품의 더딘 회복은 2분기 실적 IR을 통해서 이미 확인. 3분기 영업이익 620억원의 재고미실현 손익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너무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판단. 신제품 매출 기여와 수익성 개선 영향은 유호 하반기는 낮아진 기대감에 부합하는 실적 흐름 예상. KTNG는 수출 부진 우려가 재차 부각됐지만 10만원 주가에서 하방 경직성 확보 11년 배당수익률 6% 기록한 이후는 4% 배당수익률이 추가 하방을 지지. 수출은 13-14년 사례를 참고할 때 19년 반등이 예상되며 18년 DPS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추가 상승을 견인할 전망. CJ제일제당 가공식품의 점유율 상승 긍정적. 대상이 프로모션을 강화했던 장류를 제외한 전부분 M/S 상승 흐름 특히 HMR, 김치, 만두 카테고리 점유율이 가파른 상승세. 가공식품의 매출 성장은 하반기 10% 흐름 지속(전년 동일 기준). 소재와 사료 부문은 예상대비 양호한 수익성 지속. 쉬완스 컴퍼니 M&A는 딜 구조 구체화, 자금 조달 리스크 제거 중. 1-2달 내에 구체화 될 가능성 있으며 추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맥주 부문의 부진 지속. 전년도 추측 기간 차이에 따른 높은 기저효과 있으며 국내 B2C, B2B 맥주 시장에서의 국내 제품 부진 흐름 지속. 소주 부문이 지방 점유율을 확보하며 긍정적이지만 맥주 부진을 커버하기엔 역부족. 롯데푸드는 실적 불확실성은 적음 다만 자사주 관련 오버행 이슈가 우려스러움.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우려 요인. 농심, 모멘텀 부재 농심은 가격 인상 검토할 수 있지만 오뚜기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환경에서 쉽지 않음

####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관심종목

##### 롯데제과 (280360)

3Q18 빙과 부문 성수기 도래로 2분기 대비 매출 감소세 완화. 수익성 개선 전략이 정착되는 19년 이후 본격적인 실적 개선 전망. 18년 회계 기준 적용시 상반기 전년 대비 매출 4-5%, 영업이익 150억원 감소. 1Q18 매출 6%, 영업이익 90억원 감소. 2Q18 매출 2-3%, 영업이익 60억원 감소. 국내 건과는 기존 가이던스 하향 예상. 빙과는 상반기 전년 수준 유지 3분기 하이싱글 성장 예상. 전체적으로 영업전략이 과도한 무쇄매출을 지양.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신제품 부재로 매출 부진 흐름은 이어질 전망. 건과는 매출 상반기 4-5% YoY 감소. 다만 2분기는 1분기 대비 감소폭 개선된 점은 긍정적. 해외 수출은 상반기 4-5% YoY 감소하며 부진. 품목별로는 컵/캔디/비스킷은 하이싱글 수준 감소. 파이는 2분기 30% 성장(경쟁사 생크림 파이 출시에 따른 반사이익)한 효과로 상반기 하이싱글 성장. 빙과는 상반기 전년 수준 유지. 7월은 10% 성장, 8월 비슷한 성장세 예상. 제빵은 상반기 7-8% YoY 감소. 점포정리는 상반기 20% 진행. 해외 상반기 국가별 실적은 환율 영향으로 변동성 확대

##### 롯데푸드 (002270)

동일기준 2Q18 매출액 동향, 유제식품 3-4% 성장, 빙과 등 4% 증가, 육가공 1-2% 감소. 3Q18 빙과, 델리카 부문의 실적 견인 지속 예상. 델리카 17년 베이스가 하반기 높아지면서 매출 증가세는 1분기 이후 완화되는 추세. 하반기는 매출보다는 수익성 개선효과가 실적 성장 주도할 전망. 자사주 처분 방안은 아직 미정. 유제부문(식용유/마가린/쇼트닝/휘핑크림/버터 등) 가공유지는 팜유/대두유 가격 하락으로 판가 하락 압력을 받고있지만 중소형 거래처 확대로 수량 성장 지속. 매출액 유지, 영업이익 유지 흐름 하반기 예상. 빙과/파스타/떡은 유제부문(식용유/마가린/쇼트닝/휘핑크림/버터 등) 가공유지는 팜유/대두유 가격 하락으로 판가 하락 압력을 받고있지만 중소형 거래처 확대로 수량 성장 지속. 매출액 유지, 영업이익 유지 흐름 하반기 예상. 육가공은 햄버거 패티 매출 500-600억원 수준. 가격 인상에도 수량 부진으로 감소. 햄버거병 사태 이후에 햄버거 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황. 3Q17 부터 햄버거병 영향이 본격화 했으므로 하반기는 낮은 베이스에 따른 전년대비 개선 효과 기대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17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17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17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